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정은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시장경제화)와 체제적응력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창발성, 자지조직화, 공생을 적용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해보려 한다. 무질서의 증가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듯이, 북한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 북한체제의 적응력 또는 생존은 새로운 현상인 시장경제화가 기존 시스템인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하느냐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얼마나 잘 공생하는가의 여부가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가 초기 공급부족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 제도적 변환을 동반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네트워크의 확산은 다양한 사회성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시장 행위자들을 양산한다. 심지어 북한의 기근은 네트워크와 시장이라는 두 요인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만성적인 기근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through)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경제화의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동시에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결성(또는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증대하여 북한체제의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주제어: 시장경제이행, 체제적응력, 복잡계 이론, 자지조직화, 공생, 시장화, 사회적 네트워크

I. 서론

1. 문제 제기

국내외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지배적이다. 혹자는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3세계 국가로 탈북한 사람들이 수만 또는 수십만에 이른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자는 북한 전역에 시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기간 주요 국가행사나 현지 지도에 나서지 않자 북한의 급변사태설 또는 군사쿠데타설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또 많은 국내외의 대북 NGO들은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각하여 다시 대규모의 아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 상에서 거론된 정보만 토대로 생각해보면 북한사회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무질서 현상이 지배적인 듯 보이지만 북한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들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나 급변사태설이 난무하던 때에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지연되고 있던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북한 삭제와 핵불능화 검증 문제는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또한 방북한 사람들이나 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평양을 비롯하여 다른 북한 지역에서 동요나 혼란의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한다. 지난해 내내 남한당국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곡물생산¹⁾ 수준도 저조했지만 북한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상반된 두 모습의 북한사회는 모두 북한사회의 실체이다.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에 의하면, 언뜻 보기에 무질서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무질서 현상 중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가진 법칙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질서가 생성된다. 이처럼 복잡계 이론은 북한이 무질서한 사회적 현상이 증가한 가운데서도 체제가 그럭저럭 유지되고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력과 적응력이 증대되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생존력 또는 적응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질서는 바로 시장경제화와 네트워크의 분화에 있다. 특히 북한사회에서 시장의 발달은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네트워크 간에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복잡성이 증대함으로써 북한사회는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시장경제화)와 체제적응력 간의 상호관계를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창발성, 자지조직화, 공생 등을 적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적응력 또는 생존력은 새로운 현상인 시장경제화가 기존 시스템인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하느냐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얼마나 잘 공생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

1) 세계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정곡 334만 톤(조곡 421만 톤)으로 178만 톤의 곡물이 외부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8 December, 2008).

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가 초기 공급부족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 제도적 변환을 동반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놓여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농촌과 인근도시를 연결하면서 계획경제에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던 기층시장인 농민시장이 어떻게 도시로 확산되어 근대적인 시장체제를 형성하는가를 설명한다. 북한의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네트워크의 확산은 다양한 사회성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시장 행위자들을 양산한다. 이 연구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만성적인 기근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through)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경제화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동시에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결성(또는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증대하여 북한체제의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시장화와 시장경제

북한경제에서 시장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획경제의 침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시장의 활용으로 볼 것인가는 북한 연구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다. 브로델(Braudel)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에서 나왔지만 시장경제와 번번이 대립하였으며, 현대의 시장에는 전통적인 것, 고졸한 것, 근대적인 것, 최신의 것 등이 뒤섞여 존재한다고 주장했다.²⁾ 이것은 인류가 살아

²⁾ Fernand Braudel 저,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교환의 세계(상)』 (서울: 까치, 1996).

온 공동체에서 시장의 발전에 관한 단순하고 단선적인 역사는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시장은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그것은 행정적 통합기능에 필적할 만하거나 또는 능가하기도 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보완하였다. 그리고 근대의 중국사회인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시장경제는 대립하지 않았다.³⁾

인류 역사는 시장은 결코 자본주의의 특허전매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주의의 대립물도 아님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장은 이념적 체제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류의 실험은 계획보다는 시장이 자원의 분배와 이용에 더 많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고 따라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독특한 형태의 사회주의체제에서조차 시장은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조정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58년 8월~9월에 급진적인 공산화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정기시장을 대부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로 인해 상품분배체계가 거의 마비되었으며 결국 이듬해 9월 농촌시장을 부활시키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키너(Skinner)는 중국 사회주의농촌에 존재하던 기층시장공동체의 잠재성을 통해 중국의 시장모델 이론을 설명하였다. 그는 1958~1961년 기간에 중국 농촌의 기근 발생이 인민공사라는 신생 조직체가 촌락과 기층시장 간에 이루어지는 농촌교역의 자연적 사회경제체제와 일치하지 않았거나 운용을 방해했던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협동농장은 기층지역과 농민시장 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을 배제하지 않았고 농장 운용에 포섭했다는 점에서 농민 기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의 기층시장인 농민시장은 큰 규모의 상위 시장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3) William G. Skinner,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4 no. 1 (November 1964), p. 70.

되며 결국 근대화 과정에서 시장거래 활동은 농민시장에서 도시의 상설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체제의 근대화는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하나는 시장권의 확대이고 또 하나는 자급자족의 급격한 축소이다. 이 두 가지의 축에 의한 획기적인 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동력의 기계화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시장체제의 근대화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송을 통해서 경제효율이 높은 외부의 생산체제와 연계시킬 때 비로소 시작된다.⁴⁾ 북한의 시장체제는 2003년 중앙정부의 시장상설화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후 전국적 범위로 시장은 확대발전하였으며, 1990년대 초중반기에는 운송수단의 운용 중단으로 수많은 보따리 행상들이 시장화를 주도했다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근대적인 운송수단을 끼고 큰 규모의 조직적인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북한의 시장체제 역시 근대화의 과정에 있다. 북한에는 부실한 철도망을 대신하여 전국적으로 자동차교통망이 전국의 물류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 자동차교통망에는 간부들이 개입되어 있다.⁵⁾

북한의 시장화는 ‘자력 갱생적 시장화’(양문수, 2005), ‘자생적 시장화’(이영훈, 2005), ‘족생적 시장화’(2005), ‘자발적 시장화’(이석기, 2004), ‘점진적 시장화’(정세진, 2003)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 용어에 대해 차문석(2007)은 북한사회를 시장사회,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분명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회하려는 연구자들의 타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문석은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시장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결정하는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했으며, 그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서 ‘전국 시장’을 제시하였다.

⁴⁾ Ibid. p. 129.

⁵⁾ 계명빈,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림진강』, 1호 (2007), p. 56.

하지만 시장경제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유통 공간이나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시장경제체제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조정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뿐만 아니라 사영화(privatization)와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노동시장, 자본·금융시장과 같이 시장의 분화 및 제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시장화는 시장의 분화와 사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동기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는 소비재부문에서만 시장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경제체제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요소들이 많다.

그렇다고 생산재시장이나 노동시장이 완전히 부재한 것도 아니다. 이미 북한 문헌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물자교류시장’은 비록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공장과 기업소간에 서로 필요한 자재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변 만큼 일한 만큼’의 분배, 즉 업적별 차등 임금지불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장·기업소의 지배인은 잉여 노동력을 해고하기도 하고 고급의 숙련노동력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농촌에서는 노동력을 사서 사영지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법적인 고용농민이 등장하고 있다.⁶⁾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전체 경제에서 계획에 의한 배분의 비중은 작아지고 시장 조절에 의한 배분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가격 결정에서도 정부의 지도가격보다는 시장가격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며, 또 소비재시장·제한적 생산재시장·비공식

⁶⁾ 김중욱 외, 『민간차원의 대북협력사업의 평가를 통한 북한의 농촌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 한국농촌공사, 2006), p. 54.

적 노동시장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화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북한사회에 대한 복잡계 이론의 적용

복잡계 이론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들어 사회과학이나 심지어 인문학 및 예술 분야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학문적 조류이다.⁷⁾ 복잡계 이론은 선형(linear)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뉴턴식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힘든 ‘비정상적인(abnormal)’ 이거나 돌연변이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등장한 수많은 이론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복잡계 이론은 무질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체 또는 사회체제가 하나의 질서체제로서 존재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⁸⁾

복잡계에서는 요소 그 자체보다 요소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⁹⁾ 다시 말해서, 복잡한 현실은 다른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에 따라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낸다. 하부의 수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상부의 거시적인 구조를 창발시킨다. 수없이 많고 독립적인 작은 요소들은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면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해져서 스스로 거시구조를 만들어낸다. 복잡계는 결정론적으로 그 구조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의 상황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정적 부분도 존재한다. 이 비결정적 부분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비결정적인

7) 민병원, “복잡계로서의 국제정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한 실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2002), p. 427.

8) 위의 글, p. 428.

9) 윤영득, “지식 기반 경제와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 『경영·경제연구』, 20권 1호 (2001), p. 3.

부분이 환경의 구조와 공명하면서 환경의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자기조직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하이에크는 일찍이 복잡성(complexity)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외형상의 무질서에 내재하는 자발적 또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언급하였다. 시장의 질서는 끊임없이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보다 나은 질서로 진화해가고 있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또한 진화의 과정은 언제나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생존은 기존의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새로운 형질이나 현상은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시스템에 흡수되거나 추가됨으로써 공생(symbiosis)할 수 있다.

이상의 복잡계 이론을 지난 10여 년 동안 급변한 북한사회에 적용해봄으로써 북한체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유일적 사상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는 북한은 과거 10년 동안에 격변의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사회주의진영의 해체, 국가배급체제의 마비, 심각한 경기침체, 만성적인 기근과 대규모 아사에 의한 인구 손실, 사회일탈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무질서의 증가)는 흥미롭게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새로운 질서의 생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력갱생’에 직면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자발적 혹은 자생적 시장화를 통해 생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질적 현상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거나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와의 공생하였다.

바라바시(Barabasi, 2002)는 사회적 일탈을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힘은 그물처럼 얽혀있는 사회적 그물망이며 다양한 종류의 행위자들이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바로 그것에 의해 한 사회의 생존가능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관계의 연결망에서 행위자는 개인, 조직, 국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교환, 거래, 이해관계, 소속, 친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들 사이에 구성된다.¹⁰⁾ 그리고 시장은 인간관계

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¹¹⁾ 결국 한 사회는 상호연결성을 통해서 견고성(내구력)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전개하며, 이러한 원리는 북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체제의 생존과 균형을 이루는 복잡한 사회적 그물망 또는 상호연결성은 바로 시장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 연구에서 한때 팽배했던 북한붕괴담론은 이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체제(시스템)와 인민 모두의 적응력이 증대하여 담론을 정당할 만한 논거가 더욱 빈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사회의 적응력은 어떻게 증대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을 매개로 북한사회의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적응력이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크게는 시스템 자체의 적응력이 있으며, 작게는 시스템 행위자의 적응력이 있다. 전자는 외부환경의 단절적 변화에 시스템이 적응하는 역량을 의미하고, 후자는 외부환경의 섭동 또는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적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¹²⁾ 네트워크의 복잡성 증대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하나는 시스템 내부를 창발시키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외부의 단절적 변화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항상성이 바로 적응력과 맥을 같이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¹³⁾

북한의 전통적인 네트워크는 토지개혁과 농촌협동화과정, 산업국유화 등 사회주의로의 개조작업을 통해서 대체로 해체되었다. 1946년 토지개혁은 전통적인 사회네트워크인 친족집단의 재정적 기초인 문중재산을

10) 송호근 외 편저, 『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 27~28.

11) Fernand Braudel,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교환의 세계(상)』, p. 26.

12) 윤영수 · 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475.

13) 위의 책, pp. 475~476.

몰수하고, 1958년 농업협동화운동의 완료로 친족조직은 거의 완전히 마비되고 마을에서 친족의 지배구조는 파괴되었다. 대신 협동농장에서는 친족관계보다 농장원으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었다.¹⁴⁾

북한에서 사유재산제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망과 사적 관계망의 경제적·사회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대신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통해 공적관계망이 전 사회에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강제하였다.¹⁵⁾ 특히, 배급제는 공적 관계망이 인민대중의 생활 속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었다.¹⁶⁾ 그런데 흥미롭게도 1990년대 들어 공적 관계망의 기반이 되는 배급제가 붕괴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망은 대변동에 직면하게 된다. 공적 관계망이 위축하고 반면에 전통적 관계망, 사적 관계망, 비공식적 관계망 등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시장화의 진전은 후자의 관계망들이 부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구성원들을 새로운 시장 주체들로 인입시키고 수많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하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¹⁴⁾ Lee, Mun Woong,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 1976), p. 128.

¹⁵⁾ 장세훈(2005)은 북한의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적 관계망, 사적 관계망, 공적 관계망으로 새롭게 유형화하였다. 우선, 공동체적 관계망(communal network)은 전통사회의 촌락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소규모 집단에서 집합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주로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맺어지는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다음으로, 사적 관계망(private network)은 개별성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비인격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맺어가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공적 관계망(public network)은 관료제적 조직체계가 시민사회로 침투해서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망이다.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2005), pp. 106~107.

¹⁶⁾ 위의 글, p. 111.

3)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담론

북한은 현재 시장화의 수준을 지나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형성된 상태가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중’인 것이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계획경제과 시장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제와는 분명한 경계를 긋고 있다. 북한이 규정하는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과 판매를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경제”¹⁷⁾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자유판매를 실현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단지 물자교류시장과 지역시장만이 있을 뿐이라며 시장의 존재가 시장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에서 국영기업이 기본이고 시장은 계획의 공백을 메우는 보조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의 공식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장경제적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것들은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합법이나 불법이나의 구분과 경계와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actually existing) 실체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자재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의 자재공급시스템은 붕괴되고 물물교환에 의한 뒷거래는 현금을 매개로 한 불법적 생산재시장으로 발전한다. 이는 먼저 형성된 소비재시장으로부터의 유출효과(spillover effect) 때문이다.¹⁹⁾ 즉 소비재 생산 기업들은 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생산자재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생산

17)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호 (2006), p. 14.

18)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309.

19)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23.

재시장이 형성되면 자재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풀리게 되며 계획 내의 자재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반대로 시장은 확대된다. 국가는 계획을 복원하기 위해 불법 시장의 확산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부패한 중간관료의 매개로 국가의 의도는 쉽게 무산되기 일쑤이다. 결국 국가는 불법 시장의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하고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공식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서 계획경제에서 서서히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II. 시장경제의 태동과 이행

1. 시장경제의 태동

북한에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시장화는 서구사회가 그러했듯이 ‘보따리장수’, 즉 행상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행상인은 보잘 것 없는 상품을 뒷목에 얹어 운반하거나 등에 지고 운반하는 상인이다. 이들은 읍이나 시골마을, 나아가서 도시에서 일상적인 상품 분배망에서 벗어나 있는 빈틈을 메워주며, 그들은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자이기도 하다.²⁰⁾ 일반적으로 행상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저절로 사라져간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이후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행상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19세기에 행상은 다시 살아났다. 적어도 상품 분배망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산업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행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브로델은 행상이 매우 적응력 있는 체제이며, 상품 배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행상이 거듭 살아나곤 한다는

20)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교환의 세계(상)』, pp. 92-95.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밀수, 절도, 장물 취득과 같은 암거래 활동이 늘어나거나 혹은 경쟁과 감시가 느슨해지면 행상이 되살아나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18~19세기 서구사회에서 행상인에 대한 브로델의 탁월한 통찰력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를 설명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수많은 보따리장수, 등짐장수는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큰 공신자이며 동시에 초보적인 형태의 시장경제를 개척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배급이 먼저 끊긴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식량조달을 목적으로 비교적 식량사정이 좋은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지고 간 가정용 공업제품이나 중국 상품을 곡물과 교환하였다. 행상인은 폐쇄적인 지역간 장벽을 넘어 곡물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기근의 심화를 완충시켰다. 또 공업품과 곡물 간의 지역 시세차이를 이용하여 행상인은 도시민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이윤을 축적하며, 축적된 이윤은 구조화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복잡계 이론에서 하부의 수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상부의 거시적 구조를 창발시키듯, 수많은 행상인들과 자생적 시장의 출현은 전국의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다시 지역내부의 수많은 경제 주체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결국 북한정부가 전국적 규모의 상설시장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북한사회에도 시장경제는 거시구조를 창발시킬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었다. 시장체제는 시장의 계층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계층성을 갖게 되었고 북한체제는 자기조직화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시장은 자체 조절적이고 경제 전체를 지배하며 합리화시키며, 이것이 경제 성장의 역사의 핵심이다.²¹⁾ 시장경제는 아주 지체된 경제에서든, 아주 발달한 경제에서든 밑으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침식당할 수 있다. 이

21) 위의 책, p. 315.

러한 시장경제의 속성 때문에 북한에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북한사회의 더 큰 변동을 예고한다. 화폐는 시장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시장을 확대시킨 요소임에 분명하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권위주의적으로 또는 관료적으로 가격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격이 그 통제로부터 벗어날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리고 시장이 도시와 병합하게 되면 시장경제는 빠른 속도로 자가발전을 한다.

2.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

1) 시장의 변형

1990년대 이전에 시장(‘농민시장’)은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행위자도 주로 농민들이었다. 농장휴일에 맞춰 10일장 형태로 개설되었으며, 양곡·술·약재·공업품 등 거래금지 품목 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장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행위자도 주로 도시민들이었다. 또한 거래가 되지 않는 품목이 거의 없었다. 1990년대 이전의 시장은 생계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의 시장(‘장마당’)은 생계수단 그 자체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를 갖는다. 장마당의 영향으로 공식적이었던 농민시장도 점차 장마당 화암시장화되면서 공식 시장과 비공식 시장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2003년 5월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불법적인 시장들은 결국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2003년 5월 5일 내각지시 제24호에 의해 기존의 농민시장은 종합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시장관리소는 매일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매월 한번씩 판매자들로부터 국가납부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또 가내수공업품,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

들의 생산품, 수입상품 등도 판매가 됐다. 내각 지시문은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시세를 고려하여 시장한도가격과 상품가격을 정해주고, 가격조절 지표상품인 쌀, 식용유, 설탕, 조미료에 한해서만 시장한도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장한도가격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기능하지 못했으며, 이점은 “지역시장관리의 현실태는 행정적성격의 한도가격설정이나 단순한 가격공시방법으로는 시장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언급한 데서 북한 당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²²⁾ 시장이 상설화되고 전국적인 지역망을 갖추게 되자 전문적인 상업인(돈주, 도매인, 중간상인, 거간꾼 등)이 등장하고 상업자본이 출현하게 되었다.

어떤 시스템은 처음에 조직되면 급속히 성장하고,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곳곳에서 경직되기 시작한다.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것을 자기조직화의 임계현상이라고 한다. 북한의 시장체제는 기존 체제의 지배세력 또는 기득권에 도전할 때 당국의 강한 물리력 또는 공권력을 통해 때때로 경직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시장에 대한 자기조직화의 임계현상은 2005년부터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당국은 시장 상인의 자격을 40세 이상의 여성만으로 제한하였다. 심지어 2008년 말 북한당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종합시장’(상설시장)을 폐쇄하고 과거와 같이 시장에서 농토산물 및 가내수공업품만을 사고팔도록 거래 품목을 제한하고 수입품이나 공산품은 국영상점 및 직매점 등에서 위탁·판매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시장 개편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²²⁾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호 (2006), p. 37.

2) 시장의 분화와 계층 형성

북한사회의 시장은 이제 자기조직화의 진화능력을 갖고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양산하며 계층을 형성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며 유기체를 형성해 가듯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면서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시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300~350개 소, 시장의 수용규모는 2천 명~1만 명, 전문장사꾼의 수는 인구의 약 3~4%에 해당되는 70~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³⁾ 현재의 시장은 “10여 년전의 농민시장과 그 의미가 달라졌다. 지금 시장에서는 농토산물뿐 아니라 식료품과 공업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농장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사고 팔고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종류와 판매자가 그전과 완전히 달라진 조건에서 시장을 농민시장이라 하지 않고 그 지역의 이름에 따라 평천시장, 평성시장 등으로 고쳐부르고 있다.”²⁴⁾

지역시장은 기존의 농민시장을 정부가 공설화한 것으로 평양시에는 약 40여 개의 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 단위로 1~2개, 시 단위로 3~5개의 시장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300~350여 개의 시장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물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평양은 최대의 소비지이며, 평성은 최대의 상품 집결지이다. 평성은 남포, 신의주, 청진, 원산, 함흥, 나진선봉 등의 물류 기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시장(또는 종합시장) 외에도 북한에는 다양한 유통단위들이 있다. 국영상점 외에도 준국영상업망인 직매점과 수매상점이 있다. 직매점은

23)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pp. 156-158.

24)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p. 199.

협동농장과 도시의 가내작업반, 공장의 필수품직장·작업반 등에서 상업당국의 허가 하에 공장·기업소에서 나오는 유희부자재나 폐자재 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소비재가 집결되어 판매되는 상점이다. 잉여 농산물이나 가내수공업품을 등을 수매하는 수매상점은 원래 생산 및 편의 협동조합 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무역기관이나 개인에게 인수되어 운영되거나 개인의 자본이 투입되어 경영이익을 개인이 챙기고 있는 등 변칙적 운용이 만연해 있다.

이상의 시장들이 대부분 소비재를 취급한다면, 물자교류시장은 생산재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징후이다. 물자교류시장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물을 일정한 한도에서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상업적 공간이다. 물자교류시장의 허용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은 실적생산량의 3~10%를 다른 공장과 기업소와 자유롭게 거래하여 자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²⁵⁾ 협동농장들도 자체적으로 영농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농산물을 물자교류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물자교류시장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하에서 이루어지고 거래품목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상업적 시장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전환이다.²⁶⁾

25) 심동명, “지방자체자원에 의거하는 것은 지방공업발전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1호 (2004), p. 20.

26)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자대상에는 생산정상화몫, 계획초과분, 판로가 없는 수출품, 원료,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한 제품, 계획지표밖에 더 생산한 제품(8월 3일 인민소비품은 제외), 필요이상 예비로 가지고 있는 자재,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공급계획을 받지 않고 생산한 제품, 불합격품과 등외품 그리고 회수, 몰수하였거나 동원하여 넘겨준 물자(운전설비, 배와 고정재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설비는 제외), 농장의 농산물(곡물 포함)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시장의 행위주체도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지면서 시장은 계층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계층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조적인 관계를 지닌다. 시장경제의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돈주 또는 전주(錢主)가 있다. 이들은 약 5천~1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일종의 상업 자본가로서 상품유통을 개시하는 주체이며, 상품을 청진, 신의주, 라진선봉 지역 등 대외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에 가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전국적인 유통을 자극하여 전국적으로 상품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돈주의 아래층을 차지하고 있는 일명 '달리기 상인'은 현지 구매상인으로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판매한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전국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²⁷⁾

다음 아래층에 있는 중간상인은 돈주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돈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시장의 매대상인(소매상인)에게 판매하여 회수한 수익에서 돈주에게 원금을 갚은 후 차익을 남긴다. 이들은 평양, 평성, 남포, 신의주, 청진, 원산, 나진선봉 등 전국 물류 지역을 돌며 도매상인과 소매상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매상은 각지의 물품을 사들여 전국 각지의 시장 또는 장마당에 유통을 시키는데, 시장 또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80% 이상이 중국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상인이나 북한 내의 화교들이 상품공급원으로 관여한다. 시장경제의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을 차지하는 상인은 소매상인으로 매대상인과 메뚜기 상인으로 구성된다. 매대상인은 시장의 매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메뚜기 상인은 매대없이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장사하는 행상인이다.

27)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수령을 대체한 화폐”, 『담론 201』, 제10권 2호 (2007), p. 97.

Ⅲ.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체제적응력

1. 네트워크의 복잡성의 증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대다수의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대규모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따라서 직장으로부터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 역시 끊기게 되었다. 식량을 자력으로 획득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의 구매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국가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은 자력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려 각자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개별 사회구성원들은 공적 관계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맺거나 기존에 제한받았던 전통적 관계망과 사적 관계망을 활발히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망의 부상과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공적 관계망의 파괴 또는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존립을 위해 기존의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 사회적 관계망들 가운데 선택적 친화성을 가진 것들로 구성된 생존네트워크라는 성격을 지닌다.

기근 초기에 개인 차원의 생존의 여부는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기존에 잘 구축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던 사람은 큰 피해를 입었던 반면, 친척이나 가족, 친구와 같은 사적이고 전통적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농민들의 사경지(私耕地) 확대로 잉여곡물을 축적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행상인을 매개로 하여 잉여곡물과 공업제품을 교환이 증가하였다.

노동자 가구의 경우에는 원조와 시장교환을 통해 기근에 대응한다. 배

급이 중단되면서 친척의 원조, 특히 해외 친척의 원조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친척 간 네트워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해외의 친척은 주로 중국 조선족 혹은 재일 조선인들이었으며, 친척의 원조는 기근을 면할 가능성을 높였다. 북-중 변경지역 주민들은 친척방문 형식으로 중국에 오거나 중국인들 중 북한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일정한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특히, 신의주지역에는 화교가 많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량의 식량을 신의주 지역에 운송함으로써 북한 서부지역의 식량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²⁸⁾ 또 도시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가재(家財)나 집에서 만든 물품을 팔거나 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 신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와 비슷한 상황이 출현한 것이다.

해외의 지원은 다시 시장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남한이나 해외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이 지원되면 북한 내 절대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도매상인들은 그동안 수집해 놓았던 식량을 시장에 많이 풀기 때문이 전반적으로 식량가격의 하락현상이 발생한다. 또 국내의 시장네트워크는 대외시장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역기관의 수입대행 현상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무역기관들은 계획에 의해 무역할당(이를 현지인은 ‘와꾸’라고 표현함)을 받는데 자본이 없어서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을 많이 가진 개인상인(일명 돈주)을 대신하여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개인상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또 최근에는 무역회사들이 중국 상품을 수입하여 도매상을 거쳐 종합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화교 또는 조교 등이 연계되어 북한과 중국 간의 시장을 연결하고 있다. 신의주, 혜산, 남양, 회령 등 지에는 총 140여 개의 중국상품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⁹⁾

28) 林今淑, 『中朝經貿合作』(延邊: 延邊大學出版社, 2006), p. 94.

이처럼 ‘고난의 행군’ 이후 형성된 시장이 그 이전 시기의 시장과 다른 점은 지리적 전국망과 사회생활의 전역망을 형성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을 향해 열려있다는 데 있다.³⁰⁾

공식 네트워크 역시 시장네트워크와 연결된다. 공장 내에는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공장 근로자들의 생필품을 생산하는 가내 기업소가내작업반, 가내샅가공 등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과 연계되어 해당 공장을 지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³¹⁾ 이밖에도 공장지배인, 당간부,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결탁하여 임금노동자를 고요하거나 하청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소규모의 지하 공장은 자재 조달, 생산, 판매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분업화되어 있으며 그 생산의 규모가 상당하다.³²⁾ 또 도시의 개인들은 공장, 기업소, 무역회사, 협동단체, 인민반 등의 이름을 빌려서 자영업에 종사한다. 자영업은 시장의 매대 소유권은 명목상 기업소나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그 매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행하는 경우를 이른다. 이러한 자영업은 물물교환이나 상품유통, 음식업, 가내수공업 등과 결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주민의 생존 여부는 점차 시장적 네트워크에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냐에 좌우된다. 당, 정, 군, 일반주민 간에 생산, 유통, 판매가 시장을 매개로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시장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공식적

29)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p. 105.

30) 계명빈, “우리나라의 경제형편”, p. 59.

31) 동용승,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8).

32)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p. 114.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 등과 만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결국 네트워크의 복잡성 증대는 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과 행위자의 적응력을 높인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진행과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의 축적은 북한체제와 주민의 생존력 또는 적응력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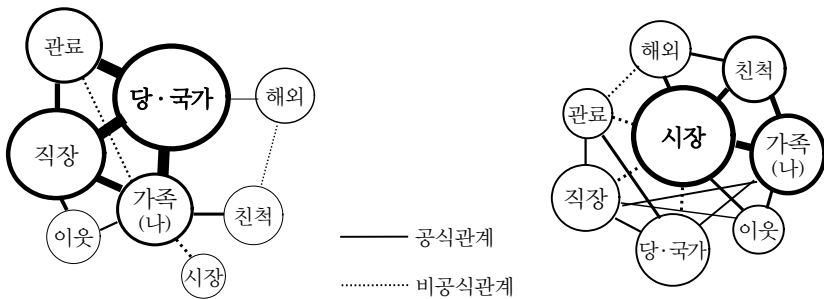
2. 네트워크의 체제적응력

이상에서 언급된 생존네트워크의 구조 변화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 이후 개인 및 조직의 생존네트워크가 상당히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시기에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당-국가와 직장이었다. 시장이나 친척, 그리고 관료는 생존에 꼭 필요한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과의 네트워크는 생존의 보조적인 차원에서 필요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로 시장이 크게 부상하였다. <그림 1>에서는 대체로 노드(행위자 또는 조직)들이 느슨하고 연결되어 있고 넓게 퍼졌다. 반면에 <그림 2>를 보면 대체로 모든 노드들은 시장을 통해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며 좁은 범위 안에 모여 있다. <그림 1>에서 시장은 거의 링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 비공식적 형태의 링크를 갖고 있다. 반면에 <그림 2>에서 시장은 대부분의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많은 링크를 지니고 있다. 그림에서 링크의 굵기는 상호연결성의 강도를 보여준다. 1990년대 이전에 개인은 직장이나 당·국가 등의 공적인 영역과 상호연결성이 강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이나 친척 등 사적인 영역과 상호연결성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전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단절되어 있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두 영역이 공식·비공식 망을 통해 모두 연결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림 2〉의 링크들 중에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링크(실선)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링크(점선)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링크들이 많아짐으로써 복잡한 생존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상호연결성이 증대됨으로써 경제적 위기나 외부의 환경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체제적응력은 높아질 수 있다.

〈그림 1〉 1990년대 이전의 생존 네트워크 〈그림 2〉 1990년대 이후의 생존 네트워크



IV. 결론

북한 당국이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 요청을 한 이후 수백만 톤의 식량과 물품들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과 물품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일부분은 시장에 다시 집결되어 재분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식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소비재의 유통에서 시장지배력은 점증적으로 증대하여 이제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율성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식량의 사회적 분배에 '보이지 않

는 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약이 되는가 아니면 독이 되는가이다. 약이 된다고 보는 입장은 시장이 계획경제의 부족 또는 결함을 메워주는 상보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면에 독이 된다고 보는 입장은 시장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에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다.

북한경제는 초기 공급부족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 제도적 변환을 동반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놓여있다. 자생적 시장은 관리되는 제도적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농촌과 인근도시를 연결하면서 계획경제에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던 기층시장인 농민시장은 1990년대 이후 계획경제의 위기를 맞아 도시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수많은 보따리장수 즉 행상인에 의해, 나중에는 중앙정부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은 점차 전국적인 물류체계를 형성하였다. 또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네트워크의 확산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존에 농민시장의 주요 행위주체가 농민이었다면, 현재 시장에는 돈주, 중간상인, 달리기상인, 도매상인, 소매상인, 매대상인, 메뚜기상인, 되거리꾼, 거간꾼, 화교, 조교, 군인, 간부, 사무원, 의사, 교원, 주부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한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질서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은 이제까지는 그럭저럭 기존 체제와 공생해 왔다.

시장은 다양한 행위자들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전통적인 네트워크, 사적인 네트워크,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을 모두 활용하여 발전한다. 또 분화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

해 한정된 사회자원은 전 사회에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시장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네트워크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시장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증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체제와 행위자의 적응력은 높아진다. 나아가 고난의 행군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시장을 매개로 수많은 미시적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성의 증대는 새로운 거시적 사회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교환적 국가-사회관계의 형성, 즉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경제화가 과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잘 공생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접수: 2009년 4월 24일 / 수정: 2009년 5월 25일 / 게재확정: 2009년 5월 25일

【참고문헌】

- 계명빈.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하)”. 『림진강』, 1~2호 (2007.08).
-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김종욱 외. 『민간차원의 대북협력사업의 평가를 통한 북한의 농촌생활환경 실태 조사 및 분석』. 한국농촌공사, 2006.
- 동용승.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8.
-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호 (2006).
- 민병원. “복잡계로서의 국제정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한 실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2002).
- 복잡계 네트워크. 『복잡계 워크샵』. 민병원·김창욱 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스키너 G, 윌리엄 저, 양필승 역. 『중국의 전통시장』. 서울: 신서원, 2000.
- 심동명. “지방자재자원에 의거하는 것은 지방공업발전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1호 (2004).
- 알버트 L. 바라바시 저. 강병남·김기훈 공역.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시아, 2002.
- 윤덕룡.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거시경제 관리”. 『수은북한경제』, 제1권 제2호 (2004).
- 윤영득. “지식 기반 경제와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 『경영·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2001).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무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 의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2006).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2005).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시대정신, 2005.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오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호 (2006).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수령을 대체한 화폐”. 『담론 201』, 제10권 2호 (2007).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페르낭 브로델 저.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교환의 세계(상)』. 서울: 까치, 1996.

林今淑. 『中朝經貿合作』. 延邊大學出版社, 2006.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8 December, 2008).

Lee, Mun Woong.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 1976.

Skinner, William G.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4, no. 1 (November 1964).

Abstract

A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nd Systemic Adaptability in North Korea

Jeong, Eun-mee(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s Studies, SNU)

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economic order(namely, a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nd systemic adaptability in North Korea. And I try to apply the complex system theory to explain the relationship.

As a new order emerges simultaneously with the increase of disorder, North Korean socialism faces the crossroads of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through the rapid social changes during the previous 10 year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depends on how a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s a new phenomenon will adapt itself to the existing socialist system. In other words, Whether ongoing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is in symbiosis with the existing socialist or not will become a crucial factor to determine the future of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 the opinion that the reason which North Korea have muddled through in spite of the rapid chang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e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and chronic famine and economic recession may be the increase of complexity of interdependence among social networks influenced by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social networks.

Keywords: transition, market economy, systemic adaptability, complex system theory, self-organization, symbiosis, social network, differentiation

정은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공저),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공저), 『2008통일의식조사』(공저)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북한의 시대별 농업 생산구조의 분석”, “북한농업정책의 이중궤도” 등이 있다.